오늘도 집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.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. 오늘도 고뇌와 번뇌와 힘듦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. 외롭지만 집에 가면 동거인이 있기도 하고 맛난 음식도 아직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살만 하다.